

기자들, 참혹한 5월의 현장을 적다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오월 취재수첩』, 2021

권도균(Kwon, Do Gyun)*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3명이 이야기를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5·18민주화운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제가 여러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5월 22일 오후, 전남도청앞 시위군중을 향한 계엄군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집단발포 사건이다. 누가 어떻게 발포했는지, 어떤 지휘체계가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지어하는지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몇 년이 지나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에 나선 당시 현장지휘관을 비롯한 전두환 노태우 반란군부는, 당시 상황을 점점 많아지는 군중을 보고 당시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현장의 자위조치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계엄군이 먼저 부상을 당했다고 호도했다.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쓰여지고 발견된 여러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도청앞 집단발포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총격을 당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동네 예비군무기고와 근처 경찰서에서 총을 가지고 와서 무장을 했다고 되어 있다. 시간대가 적힌 공공기관의 상황일지는 이렇게 무섭고도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5·18을 폄훼하는 이들은 당시 반란군부의 답변(청문회나 기타 군부가 발표한 여러 자료 등의 내용)을 아직까지 주장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 박사과정 수료.

하고 있다. 그들은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언론이 그렇게 발표해서 그렇다고 그 근거를 주장한다. 그래서 언론이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되지 않은 상황은 진실을 가린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와 전라도의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있었다. 국내 중앙지, 지방지, 방송, 신문, 잡지사, 외국언론 등에 소속된 여러 기자들이 취재를 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계엄군 공수부대가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으로 쏘서 죽이는 장면은 보도되지 않았다. TV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은 시위군중들이 매캐한 최루연기 속에서 돌을 던지고, 진압하는 계엄군이 돌을 맞아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면 걷는 장면이었다.¹⁾ TV외에 여러 신문방송도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세우는데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가담했다.

진실과 정확한 상황은 국내에는 보도되지 못하고 외신에서만 일부

1) 진실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하여, 광주시민들은 광주에 있던 MBC와 KBS에 항의를 했다. 5월 항쟁기간동안 두 방송사는 불에 탔다. 분명히 계엄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언론사였음에도 불이 난 것에 대하여 퇴각하던 계엄군들이 불을 질렀다는 의견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불이 난 모습을 기억하거나 목격했지만, 누가 불을 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이 붙어서 번졌다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항쟁기간동안 있었던 차량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난 화재는 누가 불을 질렀는지 보았다거나, 혹은 자신이 참여하여 불을 질렀다는 증언도 있는 것에 비해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1980년 이후 광주, 전남북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5월 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누가 당시 방송사에 불을 질렀느냐와 상관없이, 호남지역의 언론인들은 시민들이 언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었다. 광주와 전남북 소재 방송인 MBC, KBS는 이후 광주의 진실과 아픔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특집영상을 지속적으로 기획 생산하였다. 이는 이후 만들어진 SBS도 상당부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다. 지역에 있는 다른 신문잡지들도 비슷한 의도로 여러 기획기사를 생산하였다. ‘공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올 것이다.’와 같은 말이 기자들 사이에 암암리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정보도에 대한 의식이 타지역보다는 높은 편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객관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역내의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된 언론, 언론인의 모습은 자주 보기도 했다.

보도가 되었다.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가거나 총을 맞은 모습, 죽은이들의 관이 도청앞 상무관에 모인 모습, 시민들이 조문을 하는 모습,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모습, 행정력과 공권력의 부재에서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서도 물자부족에 시달리지 않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중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당시 국내의 보도를 본 많은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아직까지도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전라도 놈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²⁾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가리고 아웅 했던 야만적인 시기였다.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이 정권의 시녀가 되었던 시기였다.

그중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힌츠페터는 독일 국영방송(NDR) 소속 기자로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 NHK도 보도를 했다. Time지와 Newsweek지도 전세계에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 그 외 매체들도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보도를 하였다. 그래서 ‘80년 5월은 전국화가 되기 전에 먼저 세계화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모르는 것을 외국의 교포들이나 외교관, 유학생, 수출입기업의 직원들이 먼저 알고 소식을 전달하던 시기였다.

많은 뜻있는 이들이 보도통제를 당하는 국내 언론을 믿지 못하고, 외압을 덜 받는 외국의 언론보도를 찾아 헤맸다.³⁾

- 2) 5월항쟁과 그 정신을 모독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일베나 보수유튜버들 같은 이들은 진실을 알고서도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 3) 실제로 외국언론들중 국내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자비한 가위질을 당해서, 사람들은 공식적인 수입판본 대신, 대한민국의 외국문화원이나 기자, 외교관, 수출입상, 유학생 등으로부터 해당 언론기사가 있는 매체나 뉴스 동영상을 몰래 몰래 들여오고는 했다. 당시 반란군부는 외국의 해당 언론사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취재거부, 수입제재, 판매금지 등의 압력을 넣었다. 뜻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도덕한 행동이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탄압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기록물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이 당시 상황을 취재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그중 상당수의 자료 대부분은 계엄군, 혹은 군부, 정보기관 등에게 압수되었다. 심지어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을 압수하기 위해 광주와 광주 인근의 사진관(요즘은 필름을 인화, 현상하는 사진관이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동네에 하나 꼴로 있었다.)을 돌면서 5월 당시에 찍은 사진과 필름을 아무런 법적근거나 영장없이 무단으로 압수했다. 사진을 찍은 기자, 일반인, 필름을 인화하고 현상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폭행, 감금, 고문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 탄압을 이겨내고 남은 일부의 사진들이 1980년의 현장을 전한다. 나경택, 이창성 기사를 비롯한 극소수의 몇 명이 찍은 사진이 해당한다. 이 사진들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도 아주 일부분만 남아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 2020년에 발표된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란 영화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도청앞 집단발포와 관련한 사라진 4시간과 관련한 영상, 시청각기록물을 찾는 이야기이다. 많은 시민, 기자, 연구자, 시민활동가들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분명히 존재하여 그날의 진실을 선명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 기록을 찾는 작업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기자들의 취재수첩은 말한다

당시 현장의 기자들중 전남일보 나의갑, 동아일보 최건 기자와 김영택 기자, 중앙일보 장재열, 조선일보 조광흠, 한국일보 조성호 기자가 자신의 취재수첩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했다. 그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은 동아일보 김영택, 최건 기자의 취재

수첩이다. 개인적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 전에 수집되었던 취재수첩과 등재 이후에 기증된 취재기록물의 가치를 뭐라 구분해서 표현할 방법도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여부가 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월 취재수첩』에 수록된 취재수첩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들은 것을 정리하고 쓴 기록이다. 하지만, 목적이었던 기사로는 내보내지 못하고 말았다. 기록학적으로 1차 기록이 2차 기록이 되지 못한 것이다.

취재수첩은 보도통제를 당하고 있던 언론과 달리 기자들이 생산한 1차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울분과 비탄에 잠기기도 했고, 사직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광주기자들은 현장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 일동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신지 못한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집단사직서를 전남매일신문사장에게 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정권의 한국 언론사에 대한 보도지침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차갑고도 슬픈 단면들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싹둑 잘려나가고, 까맣게 지워지고, 하얗게 백지로 나가기를 강요당했다. 메인 타이틀에 올릴 기사가 없어, 오죽했으면 서울대공원 동물들 동정기사가 주 제목이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김영택기자는 자신의 취재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려 『10일간의 취재수첩(사계절, 1988)』, 『실록 5·18광주민중항쟁(창작시대사, 1996)』 두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이 두 책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95년~1996년 검찰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일부 반란군부 인사들을 체포하여 법정에서 세우고자

할 때 이 책자들이 1980년 5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피 튀기는 현장 상황 취재의 일부(pp.64~pp.75)

1시 10분 발포에 해산하도록 하다가 3가 카톨릭센터(카톨릭센터. 현 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 다시 집합 300여명→1,000여명, 5,6 청년들 애국가를 부르다 큰 태극기 들고 길 복판으로 나가 계엄해제, 전 두환 물러가라 외침(pp.65.)

1시 32분 일제사격 개시 → 앉아 썩 자세
군중 금남로 300m 전방 3,000 운집
도지사는 계속 도청 마이크를 통해 자제를 호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수단을 철수시키고 연행자를 석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PP. 66~69.)

복잡한 상황 설명과 재구성 - 그래도 읽기가 쉽지 않다

『오월 취재수첩』은 단순하게 자료를 엮지 않고 검증과 해제를 병행해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읽다보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자료와 저 자료에 대한 복합적인 검증, 혹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읽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 물론 이런 저런 배경지식이나 상황을 잘 모르면 읽는 것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거나, 혹은 그냥 이해하기 힘든 상황의 나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을 연구하는, 혹은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이런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읽어봐야 할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록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물음을 자신에게 계속 하면서 말이다.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휘갈겨 쓴 취재수첩과 이 상황에 대한 해제가 더해져 당시 기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날의 진실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았으면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5월 항쟁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형태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들이 더 많이 해제가 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접근하기 어려운 기록물을 마주하여 쉽게 읽히기 위한 좋은 시도라 생각한다. 『오월일기』와 마찬가지로 『오월 취재수첩』도 비매품이라,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요청하여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